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고정하. 야고보 916-212-3747
 연례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레위기 19: 1-2, 17-18 제2독서 코린도1서 3: 16-23 복음 마태오 5: 38-48

◎말씀

<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는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혹은 집단의 이익과 안위를 생각하기에 어느 개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과 이익이 상충될 때 우리 사회 안에서는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과 다툼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 이기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할 수 있고, 더 큰 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마태 5, 39-42)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기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참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이기려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1코린 3, 16)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언제나 하느님의 영과 함께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영과 언제나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에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몸소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2월21일(화)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650.00 \$ 1,227.00
2월22일(수)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32.00 \$ 257.00
2월23일(목)	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축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2차헌금	\$ 460.00 \$ 0.00
2월24일(금)	연중 제7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원캠페인 기타수입	\$ 100.00 \$ 0.00
2월25일(토)	연중 제7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4,826.00
2월26일(일)	연중 제8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41명 성인:184명
교무금봉헌자	박판기.국부자(1-4월)김화연(1-3월)손창식(2-3월)나송희, 고원석(1-2월)윤재경. 김은영. 허윤정. 이명숙 김재홍. 김광희. 김평옥. 김상돈. 허형. 이상기. 최재진. 이상일. 임창순. 지영욱(2월)장호길. 봉창의. 전재순 임영자(1월)			

■신앙생활(가정의 쇄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ME

1. ME

매리지 엔카운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1950년대 말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가 착안한 것입니다. 당시 문제 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던 칼보 신부는 대부분의 가정 문제가 불안정한 부부 관계로부터 생긴다고 확신하고, 만일 부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동시에 청소년들도 돕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96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쌍의 가난한 노동자 부부들이 실험적으로 실시한 최초의 매리지 엔카운터 주말에 참가하였습니다. 1966년에는 매리지 엔카운터 주말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실시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주말이 1967년 8월 노틀담 대학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 주말에 참여했던 예수회의 겔라거 신부는 부부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또 사제생활에 대한 새로운 열의가 솟아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매리지 엔카운터는 60년대 후반 부터 미국 교회 내에서 활기찬 운동이 되었습니다. 매리지 엔카운터는 현재 57개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첫 주말(한국어 주말)은 1977년 3월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런 분을 초대합니다.

ME는 보다 더 좋은 부부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ME는 부부가 함께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다른 종교인도 환영합니다.
◆성직자 수도자나 다른 종교인이 참가해야 하는 이유는?
 ME 주말은 성직자, 수도자나 다른 종교인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직자와 성직자의 관계에서, 혹은 성직자와 사목(선교) 대상자 사이에서도 이 사랑의 대화방법은 적용되며, 이는 어느 종교 단체에서나 모두 적용됩니다.

◆ME 주말에는 특정 종교교육이 없습니다.

ME는 종교와 상관 없이 모든 분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ME 주말 중에는 무엇을 하는가?

ME 주말을 먼저 경험한 신부님과 부부들이 한 팀이 되어 ME 주말 중에 참가 부부(성직자, 수도자) 들을 발표를 통하여 도와드립니다. ME 주말 중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본 다음, 자신의 혼인 생활을 되돌아 보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하느님과 우리 부부와의 관계, 사회에서의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발표팀들이 발표를 통하여 참가자들을 도와드립니다.

◆ME 주말은 금요일 오후 7:00에 시작 하여 일요일 오후 6:00에 마칩니다. 숙식이 제공됩니다.

◆ME 주말 중에 부부 사생활이 노출되지나 않을까?

ME 주말 중에는 부부 사생활이 보장됩니다. ME 주말은 다른 부부와 상관 없이 자기 부부만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표는 발표팀 만이 합니다. 발표 후에 부부들은 각자 자신들의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ME가 과연 혼인생활을 풍요롭게 하는가?

ME는 부부가 상호 이해와 사랑을 위하여 의사 소통을 돕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ME 주말에서 익힌 새로운 방법으로 부부들은 혼인생활을 기쁘고 풍요롭게 지속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ME 주말 후에도, ME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높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황애다/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안나 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주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 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황순이. 마리아 최이주. 베아따/신용경. 그레고리오/엄. 모니카 이규청. 제노비아/김영자/우순옥. 소피아 배미성. 오틸리아/박모란. 글라라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헌자	구분	지 향	봉헌자
연	김영애. 세실리아 영혼을 위하여	정미현. 루치아	생		
연			생		

◎ 원수를 사랑하라 ◎

있는대로 다 주고 때리는대로 다 맞고
 벌도 쓸개도 다 뺏아버리고
 바보천치처럼 살라구요 참 큰 일 났네요
 겨우겨우 예수님 발 밑에 다가가다가도
 그런 말씀 한방에 그만 달아나고 싶은 것 아시나요
 차라리 또 한번 죄인의 굴레 쓰고 말지요

(홍윤숙 데레사. 시인/정준용 아켈로. 화가)



간
장
중
지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
n5322@gmail.com

**1.2.3 Auto
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

**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CA 95833
(직장상해법. 상해보상. 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막달레나)
danieelaw@gmail.com
☎ (916) 922-0107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 (916) 361-0433

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

메리서부동산·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7803 Laguna Boulevard
suite 200, Elk Grove
CA95758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

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tr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 (916) 342-7072

영문서류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면 주말날
성당에서 도와드립니다

☎ 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 (916)276-1834
사회복지부

■공동체 소식(가정의 쇄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 예비신자 교리반 시작**
매주목요일오후8시. 교리실(교리서.필기구지참)
예비신자들을 계속 인도해주세요(2월말까지)
지속적인 전교를 실천합시다.
- 2. 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2월 19일(일)성당에서 오후2시30분 출발
참여단체:1구역.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3. 성령 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4일(금)오후7시30분.성당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 4. 성지가지 회수**
작년에 나누어드렸던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사무실앞 수거함에 넣어주세요(2월26일까지)
- 5. 첫영성체 교리반 시작**
일시;매주 일요일 오전10시.사무실
교사;장선영.스콜라스티카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 6. 서중부 여성11차 꾸르실료 신청 안내**
일시;6월22일(목)-25일(일)
장소;Oakland Holy Redeem Center
자격;건진성사받고 교회봉사에 뜻을 가진자로서
후견인1명과 신부님 추천을 받은자
신청;이대원.베드로(802-338-6497)
- 7. Annual Catholic Appeal 안내**
일시;2월 19일(일)교중미사중
- 8. 본당 재정감사(대상:2016년 9-12월)**
일시;2월23일(목)저녁7시.사무실
감사인:본당 재정위원

- 9. 북가주 사제회의**
일시;22일(수)오후5시30분.오클랜드 한인성당
- 10. 멕시코 성지순례 안내**
일시;9월 10일(일)-13일(수)과달루페포함(예정)
경비;경비 \$1200.세부사항 추후공지
신청;원영일.미카엘(3월말까지)
- 11. 교구 2차 헌금**
일시;2월 19일(일)모든미사
목적:The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 12. 감사합니다!**
●점심봉사;이번주;구역부장(2016년)보조;메리서
다음주;성령기도회 보조;

<모임안내>

- 꼬미시움:19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거룩한독서모임:22일(수)오후6시30분요한2-4장
- 사목회:26일(일)오후1시30분.엘리사벳방
- 연령회:26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 대건회:26일(일)교중미사후.요한방
- ME모임:26일(일)오후5시.장순욱(916-367-3363)

<공지사항>

- 2016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세요
- The One Campaign모금(새크라멘토교구)
봉헌자(지난주);장애의(\$100)
총액;\$65,245(목표액;\$91,101)
- 건축기금 및 묵주기도 봉헌현황
봉헌금(지난주);없음 총액; \$119,031.74
묵주기도(지난주);930단 총계;419,550단

<주일/한글학교>

- 문의:주일학교(이미경.아네스)530-906-0265
한글학교(정미정.루시아)916-704-4176

화답송



주 님 은 자 비 록 고 너 그 러 우 시 네

전례봉사	연중제7주일(2월19일)	연중제8주일(2월26일)	사순제1주일(3월5일)	사순제2주일(3월12일)
해설	김은선.제노베파	문선영.바실리아	김용문(요한)	임상일(프란치스코)
제1독서	김동현.미카엘	이상인.시메온	이재덕.스테파노	구준모.요한
제2독서	김혜진.미카엘라	류정임.가브리엘라	이은희.요세피나	구동화.비아
복사	송돈희.윤여훈	권오수.최준우	김재열.이상인	김규철.이대원
봉헌/기도/청소	3-4구역	3-4구역	5-6구역	5-6구역
헌금위원	이나숙.정의주	고공자.임혜숙	나송희.류정임	장석자.고원석